

목사 냄새나는 목사

그리스도 냄새나는 그리스도인

(말라기 1:6-2:9)

이번주에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말라기서를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 이렇게 치셨습니다.

“너는 어떤 목사냐?”

“너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느냐?”

그런 질문 앞에서 목사직에 대해서,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고 씨름하던 중에 이 책이 떠올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서두에서 이재철 목사님은 자신이 해인사를 방문했던 경험을 나눕니다. 어느 날 계곡 옆에 자리 잡은 작은 찻집에 들어갔는데, 그 찻집 주인은 해인사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오십 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백련암에 올라가면, 성철 스님이 언제나 반갑게 맞아 주시며 사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산골 마을에서 사탕은 거의 구경하기 힘든 귀한 것이었기에, 그 소녀는 사탕이 먹고 싶을 때마다 한 시간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백련암을 찾았고, 그때마다 성철 스님은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그분은 결혼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갔지만, 해인사의 숨결은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자녀들을 다 장성시킨 후 다시 해인사로 내려와 찻집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요즘 스님들은 어떠세요?”

그러자 그분은 오히려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요즘 중 냄새나는 스님이 어디 있나요?”

중은 속세를 떠난 수행자입니다. 그렇다면 중에게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나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스님’이라는 호칭만 남고, 정작 중 냄새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이 자기 자신을 ‘스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목사가 자기 자신을 ‘목사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황제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좇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목사에게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냄새가 나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그대와 나를 포함하여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과연 목사 냄새가 나고 있는가? 흔해 빠진 이 시대의 목사들 가운데 목사 냄새가 나는 목사는 과연 몇이나 될까?”

목사 냄새나는 목사.

그리스도 냄새나는 그리스도인.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면으로 다루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책이 쓰여진 말라기 시대를 겉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성전도 재건되었으며, 그 성전에서 사람들은 제사와 예배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질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말라기 1:6)

그러자 제사장들은 되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올려드리고 있다고 반문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1:7)

그들은 눈먼 짐승, 저는 짐승, 병든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 (1:8)

다시 말하면,

세상 권력자에게도 그런걸 주겠느냐?

너희 직장 상사에게 식사 대접한다고 하면서,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드릴꺼냐?

집에 손님을 초대해놓고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내놓을꺼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을꺼면서

하물며 어떻게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과 영광은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무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멸’에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좀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값싸게 나를 대할 바에는, 차라리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탓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사장들이 백성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백성은 더 나은 제물을 가져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혹시라도 백성 중에 흠있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되돌려버리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무라거나 좋게 타일러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런 더러운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이 받고싶지 않은 예배로 전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후속 질문이 있겠지요.

제사장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몰라서였을까요?

분명이 율법에도 무릇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꺼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레위기 22:20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두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아예 잊어버렸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제사장이라 함은 율법을 알고 가르쳐야 하는 직분이지요. 더욱이 제사와 관련한 율법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까먹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타당한 이유는 말씀은 알아도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엔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더 큰 요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옛그제 금요 찬양모임을 가는데 아이들이 차에게 책을 읽길래 눈 나빠진다고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바로 대답하기를: “아빠도 차에서 핸드폰 하잖아요!” 할 말이 없어지더라구요. 우리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건 쉽지 않지요.

어디서 이런 글을 읽은게 생각납니다. 오늘 날 목사들이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과감히 설교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은혜에 대한 설교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없고 은혜만 있는 설교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십자가의 능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복음을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참된 은혜는 언제나 “돌이키라”는 부르심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제사장들이 그랬을꺼 같습니다. 내가 변화받아 살지 못하니, 다른 사람도 변화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도 경외의 삶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은 제단에서 나온 고기로 먹고살았다는 겁니다.

당시 경제는 좋지 않았고 세금은 높았으며 돈은 귀했습니다. 오늘날 상황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아마도 가장 헌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만이 온전한 짐승을 주님께 가져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소수였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흠없는 제물이 부담이 될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겠지요.

그래서 아마도 제사장들은 현실과 타협했을 겁니다. 병이 있든 없든, 흠이 있든 없든 그냥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일단 자기가 먹고 살고, 또 자기한테 붙어있는 가족들도 먹여살릴수 있으니까 말이죠. 결국,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타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자신의 안전을 더 걱정했던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 아버지 표현에 따르면, “생계형 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생명형 목사”여야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겉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2:8)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2:9)

제사장들은 본래 **생명과 평강의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며**,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말라기 2:5-6 참조).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것이지요.

로버트 트레일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의 정신은 언제나 교인들 속으로 퍼져나가지 않는가? 생명력 있는 목회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그러므로 진지한 마음을 가지라. 먼저 믿고 그 후에 말하라. 먼저 느끼고 그 후에 말하라.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교인들은 목사가 말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리더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번 한주 이 말라기서를 묵상하고, 또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읽으며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고백하기는
제가 목사 냄새, 그리스도 냄새가 날때보다
제 안에 세상 냄새, 죄 냄새가 아직 많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기 보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인도할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의 정욕이 앞설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기 보다는 선물받고 섬김받는게 기분 좋을때가 많습니다. 제가 가짜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면 갈수록 더더욱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목회자가 되도록 말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목사가 좋은 교회를 만든다. 그러나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든다.”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요한복음 10:11)

하나님의 양된 여러분들을 위해 온 맘과 정성을 다해 목양하는 좋은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책에서 온 몸이 부서지도록 교인들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은 비단 목회자인 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인제사장을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 장 9 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므로 말라기서 나오는 제사장에 대한 경고는 곧 **여러분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 서 있는 제사장입니다.

직장인은 동료와 고객 앞에 서 있는 제사장입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정직함,

여러분의 예배와 순종.

여러분이 강단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지켜보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리고 있는가,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로마서 12 장 1 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항복입니다.

자기부인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2026 년을 맞이하며, 첫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를 붙잡고 나아갑시다.

“나의 최선을 주님의 최고를 위해.”

남은 것이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내 삶을—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 년에도** 하나님께서 스미스 채플 한국어 회중 여러분들
한분한분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와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